

1분기 실적 발표

포스코홀딩스 “연매출 78조 목표”

전년대비 매출·영업이익 하락
철강 등 주력사업 경쟁력 강화
차세대 소재 조기 상업화 주력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가 1분기 주력 사업의 부진에 따른 실적 위축에도 과감한 연간 매출 목표를 발표했다.

포스코홀딩스는 25일 올 1분기 연결기준매출 18조520억원, 영업이익 5830억원, 순이익 609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9%, 17.3%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3.3%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91.8%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는 철강과 인프라부분은 경기침체 지속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영업이익 수준을 유지한 반면 이차전지소재부분에서 지난 분기 재고평가가 환입효과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연결 재무목표로 매출액은 78조원, 투자예산은 10조8000억원으로 계획했다.

포스코홀딩스는 글로벌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업별 본원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질개선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철강사업부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지난 2019년 국내최초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바 있는 포스코 스마트팩토리를 AI가 결합된 인텔리전트 팩토리로 한단계 발전시

키고, 경제적 관점의 저탄소 생산체제로 전환을 통해 초격차 수준의 제조 및 원가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차전지소재사업에서는 글로벌 이차전지소재 원료가격 하락에 따라 업스트림 단계에서 리튬 등 우량자원 확보에 중점을 뒀 장기적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의 기반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또 R&D기반의 혁신공정개발, 고객과 전략적 협력 및 우량기업 M&A 등을 통해 사업 확장방식에 다변화 및 전고체 등 차세대 소재의 조기 상업화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수요 정체기인 캐즘을 반영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일부 사업에 대한 투자도 합리적인 시점으로 결정해 사업전략의 질적 내실화를 다져 향후 시장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며 시장이 회복될 때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엔솔, 어닝쇼크... 영업이익 75% ↓

매출 6.1조, 영업이익 1573억
“생산시설 확대 등 미래 투자”

LG에너지솔루션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5.2% 감소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세액공제(AMPC) 수혜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다.

LG에너지솔루션이 25일 실적설명회에서 올해 1분기 매출 6조1287억원, 영업이익 1573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8조7471억원) 대비 29.9%, 전분기(8조14억원) 대비 23.4%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6332억원) 대비 75.2%, 전분기(3382억원) 대비 53.5% 감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 이창실 CFO(최고재무책임자) 부사장은 “전략 고객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가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달성했으나 전방 시장 수요 둔화, 메탈 가격 하락분 평가 반영 등의 요인으로 전체 매출은 전분기 대비 23% 감소했다”라며 “손익 또한 시장 수요 위축에 따른 가동률 조정 등 고정비 부담 증가, 메탈가 하락으로 인한 원재료 투입 시차(Lagging) 효과에 따라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LG에너지솔루션 실적에는 미국 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인 ‘텍스 크레딧’이 1889억원이 포함됐다. 텍스 크레딧을 제외한 LG에너지솔루션 영업손실은 316억원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 어려운 시장환경 속에서도 생산시설 확대 등 미래 준비를 위한 투자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1분기 본격 가동을 시작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 테네시 GM 합작 2공장이 대표적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 공장의 생산능력을 50G

Wh(기가와트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생산된 배터리는 GM의 3세대 배터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신규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다.

미국 내 두번째 단독 생산 공장인 애리조나 공장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애리조나 공장은 북미지역 첫 원통형 공장이자, ESS(에너지저장장치) 첫 전용 공장으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각광받는 46시리즈와 LFP 기반 ESS 생산을 통해 북미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사업 관련 다양한 성과도 거뒀다. 지난 3월 웰컴 테크놀로지와 함께 첨단 BMS 진단 솔루션 개발 협력에 협조했고, 사내 독립기업 쿠루(KooRoo)도 서울 지역에 200여 개의 Battery Swapping Station (배터리스와핑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포스코퓨처엠, 흑자전환 성공... 영업이익 379억

양·음극재 판매량 증가

포스코퓨처엠이 양·음극재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분기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포스코퓨처엠은 1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 1384억원, 영업이익 379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방시장의 수요 정체로 전반적인 제품가격이 하락했으나 생산안정화와 공급량 증대, 재고평가손실 환입으로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

배터리소재 사업은 리튬, 니켈 등 주요 메탈가격의 약세로 양극재 판매가가 전분기 대비 하락했으나 고성능 전기차용 단결정 양극재의 수출 개선과 함께 판매량이 증가했다. 음극재도 생산 및 판매가 증가해 수익성이 개선됐다. 또한 지난 해 4분기에 평가손실로 인식했던 재고의 평가손실 환입이 467억원 반영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817억원과 251억원을 기록했다.

기초소재 사업은 지난해 4분기 유

가 약세 영향으로 화성제품의 판매가가 하락했지만 내화물 판매량 증가로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3567억원과 128억원을 기록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2023년 3월 국내 최초로 NCMA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 양산·공급에 나선 뒤로 수출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단결정 양극재 전용으로 설계된 포항 공장의 생산도 본격화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차현정 기자



오영주 중기부 장관, 재외공관장 간담회

외교관 출신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신시장 개척을 지원키 위한 ‘외교력’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중기부와 외교부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찬을 겸해 ‘다다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7번째)이 25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재외공관장들과 조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현대차·기아, 中 최적화 전동화 모델 공개

베이징 모터쇼

아이오닉5N, EV5 롱레인지 등 선포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베이징 모터쇼에서 전동화 모델을 대거 공개하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부진한 중국 시장에서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판매량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2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국제전람센터 순의관에서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에 참가해 아이오닉5N과 EV5 롱레인지 모델 등을 공개했다.

현대차는 1208㎡(약 365평), 기아는 1100㎡(약 333평) 면적의 전시 부스를 꾸렸다. 현대차는 고성능 브랜드 ‘N’의 중국 진출 1년을 맞이해, 아이오닉5N을 중국 시장에 공개했다. 또 신형 산타페와 투싼도 중국 시장에 첫 공개했다. 특히 중국 시장에 최초로 공개한 투싼은 큰 차체를 선호하는 중국 현지 취향에 맞춰, 전장(차 길이)을 기존보다 30mm 늘렸다. 현대차는 디 올 뉴 산타페, 더 뉴 투싼과 함께 지난해 6월 출시한 중국 현지 전략 콤팩트 SUV ‘무과사’에 이르는 라인업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의 다변화된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오익균 현대차 중국사업담당 부사장은 “남양연구소, 중국 기술연구소, 상하이 디지털선행연구소가 협업해 중국 맞춤형 전기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2027년까지 전용 전기차 모델 라

인업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전기는 중국 CATL의 배터리를 장착할 예정이다. 베이징현대차는 이날 CATL과 관련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기아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고 판단, 인도 전략 차종인 쏘넷을 중국에 투입했다. 이번 베이징 모터쇼에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쏘넷이 중국에서 첫 공개됐다. 기아는 또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EV5를 전시한다. EV5는 E-V6와 EV9에 이은 기아의 세 번째 전용 전기차로 E-GMP를 적용한다. 내연기관 부스에서는 중국 판매 전략 모델로 새롭게 선보이는 쏘넷 차량 외에도 ▲스포티지 ▲셀토스 ▲삼풍성 개선모델 ▲카니발 등의 차량을 전시한다.

/양성운 기자



(위) 더 뉴 투싼(현지명: 전신(全新) 투성 L). (아래) EV5.

KCC “‘디지털 컬러 플랫폼’ 이용해 보세요”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솔루션 개발

KCC가 고객의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와 지속 발전 가능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KCC는 자체 개발한 ‘디지털 컬러 플랫폼’을 고객사와 컬러강관 구매 업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지털 컬러 플랫폼이란 KCC로부터 페인트를 구매 후 금속 강관에 코팅해 판매하는 고객사가 자신들이 매입한 페인트와 페인트를 활용해 생산한

컬러강관의 색상·제품·생산이력·재고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웹·모바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토털솔루션 프로그램이다.

KCC는 제품을 납품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가 자사의 제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사 니즈를 반영해 이번 디지털 컬러 플랫폼을 구축했다. 색상 데이터 약 5만개와 고객사 제품 데이터 약 1만 8000개를 모두 데이터화 했으며, 여기에 AI를 접목해 검색만으로 색상, 생산이력, 재고현황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김승호 기자 bada@